강진 2012년 청자엑스포 개최

496억원 투입… 체험·교류·전시 등 행사

우수성 널리 알리고 세계적 브랜드 구축

천년비색의 강진 고려청자가 세계인을 만난다.

강진군은 "고려청자의 독창성과 예술성, 우수성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알리고 세계적 브랜드 구축을 위해 강진 청자엑스포를 2012년에 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청자축제를 겸해 열리는 이 엑스포는 2012년 8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대구면 청자박물관 일원에서 57일간 열린다. 청자관련 역사와 학술을 정리하고 체험·교류·전시 등 100개가 넘는 행사가 진행되며 행사 진행과 기반시설 구축 등을 위해 모두 49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엑스포(박람회) 명칭을 사용한 지역축제는 함평 곤충엑스포, 여수 해양엑스포 등 3~4곳에 불과하다.

군은 청자엑스포 개최의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정밀 분석하는 세부용역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이 나면 내년 7월 조직위원회 구성과 재단법인 설립, 이사회와 사무국 구성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군은 청자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청자박물관 주변 청자타워 전망대 설치, 강진만을 가로질러 도암과 칠량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설치, 현대청자미술관, 대구도요지 4차로 확장 등 기반시설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청자엑스포는 천년이 넘는 청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강진청자 브랜드 가치 상승,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해 미국 전시에 이어 지난 4월 네덜란드 호르큼시를 시작으로 유럽 8개국 9개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강진 고려청자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회를 갖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새 옷 입은 개천변, 테마공원으로 장성군 북이면 지방도 734호선을 따라 펼쳐진 개천변 유휴지가 최근 코스모스 등이 만개한 테마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장성군은 북이면 신월리 상공마을부터 늘봄요양원까지 총 3km 1만㎡에 걸쳐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장성군 제공〉

산림소득 공모사업 장성군 잇따라 선정

장성군이 산림소득 공모사업의 잇따른 선정으로 부자농촌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산림청이 공모한 2010년 산림소득공모사업에 잔디유통센터 사업과 산지 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따라 군은 삼서면 금산리 일원에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 유통시설을 건립한다. 제단기, 승용 잔디기, 잔디 뜨는 기계 등의 가공장비와 유통장비를 갖추고 잔디품질 고급화, 유통구조개선, 재배기술 전문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삼서면은 전국 잔디 생산량의 53%를 차지할 만큼 대부분의 농가가 잔디를 재배하고 있어 이번 잔디유통센터 선정으로 인해 농가에 미칠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유통체계의 확립으로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출하조절을 통해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지 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은 북이면 원덕리 일원에 10억원이 투자돼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시설, 건조장, 판매장 등의 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세척기, 건조기, 분쇄기, 수송차량 등의 가공시설과 유통장비를 갖추고 건조약재를 생산, 판매한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군의원들 딴죽에 영광주민센터 '삐걱'

郡-주민간 합의 불구 대안없이 사업 보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군의원들의 무책임한 '딴죽걸기'로 표류하고 있다.

4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군 백수읍 주민복지센터 조성사업이 지난달 14일 군의회의 승인 보류로 중단됐다. 이 사업은 백수읍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에 따라 2007년부터 추진됐으며 2008년 사업비 24억원을 확보하면서 건립이 결정됐다.

부지는 애초 백수고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하기로 했지만, 군이 이 부지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면서 백수읍사무소 입구에 건립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군은 지난 6월 1천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7월에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기공 승낙서까지 받았다.

군은 지난달 1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제161회 군의회 임시회에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했지만, 의회가 지난달 14일 승인을 보류하고 이달 12일부터 열리는 제162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회는 센터 예정부지 주민들의 이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부지의 적정성을 문제삼았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백수읍사무소 관계자들의 답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도 한몫했는데 의원들은 이를 문제 삼아 군수에게까지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의원들의 태도는 주민과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지 문제는 주민과 군의 합의로 변경된 사항인 데도 의원들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도 않은 채 무작정 사업을 보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한방 어린잎 채소 개발' 최우수상

전남도 공무원 연구모임 공모사업 심사

전남도는 올해 공무원 연구모임 공모사업 심사에서 '희망전남 한방사랑해팀'이 연구한 '한방 어린잎채소 개발방안'을 최우수상에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희망전남 한방사랑해'팀은 '한방 어린잎채소 개발방안'에서 "웰빙 트랜드로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좋은 어린잎 채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므로 어린잎채소에 대한 친환경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은 "어린잎 채소시장이 지난해 241억원대에서 2012년에는 460억원대로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어린잎으로 파우더나 비누, 화장품 등 가공제품을 개발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사에서 우수상에는 언더더씨팀의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어촌소득증진방안'과 해피아트팀의 '공공건축물의 예술적 설치방안', 미소물질자원팀의 '노루궁뎅이버섯의 대량생산 방안' 등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김시라를 기리며팀' '다도해팀' '그린전남지킴이' '엑사모' 등 4개팀이 선정됐다.

전남도 공무원 연구모임은 2004년 이후 무항생제 닭을 생산하는 황금닭,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규제완화를 위한 주민불편 사례조사 등 70여 건의 연구결과를 제안, 도정에 반영시키는 실적을 올렸다. /최권일기자 cki@

다도해 섬 녹색숲 복원 본격 착수

방목가축 구제·상록활엽수 식재 나서

다도해 도서의 녹색숲 복원사업 〈본보 7월 28일자 보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는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도서지역의 훼손지 복원을 위한 섬지역의 녹색숲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서지역 방목가축 없애기 ▲경관 저해시설물 철거 ▲훼손지의 상록활엽수 식재 등으로 이뤄지며, 지난달 말 현재 1차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1차 사업은 13개 도서에서 방목가축 구제(驅除) 258마리(염소 251마리, 사슴 7마리)를 비롯해 경관 저해 시설물 5개소 철거, 상록활엽수 1만6천 그루(8ha) 식재를 완료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이달부터 시작되는 2차 사업은 지속적인 방목가축 구제와 경관 저해 시설물 철거(3개소), 도서지역 훼손지 20ha에 구실잣밤나무, 후박나무 등 상록활엽수 40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황정걸 서부사무소장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훼손지 복원이라는 도서의 녹색 숲 복원사업의 취지를 살려 지역주민과 함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목포서 8일 'DJ 추모음악회'

오후 7시30분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 음악회가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목포시 주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목포시립연극단 등 6개 단체, 200여명이 참여해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첫 순서로 목포시립연극단 김성옥 연출자가 고은 선생의 추모시 '당신은 우리입니다'를 낭송하고, 이어 목포시립국악원 박수경 원감의 살풀이 독무로 추모의 깊이를 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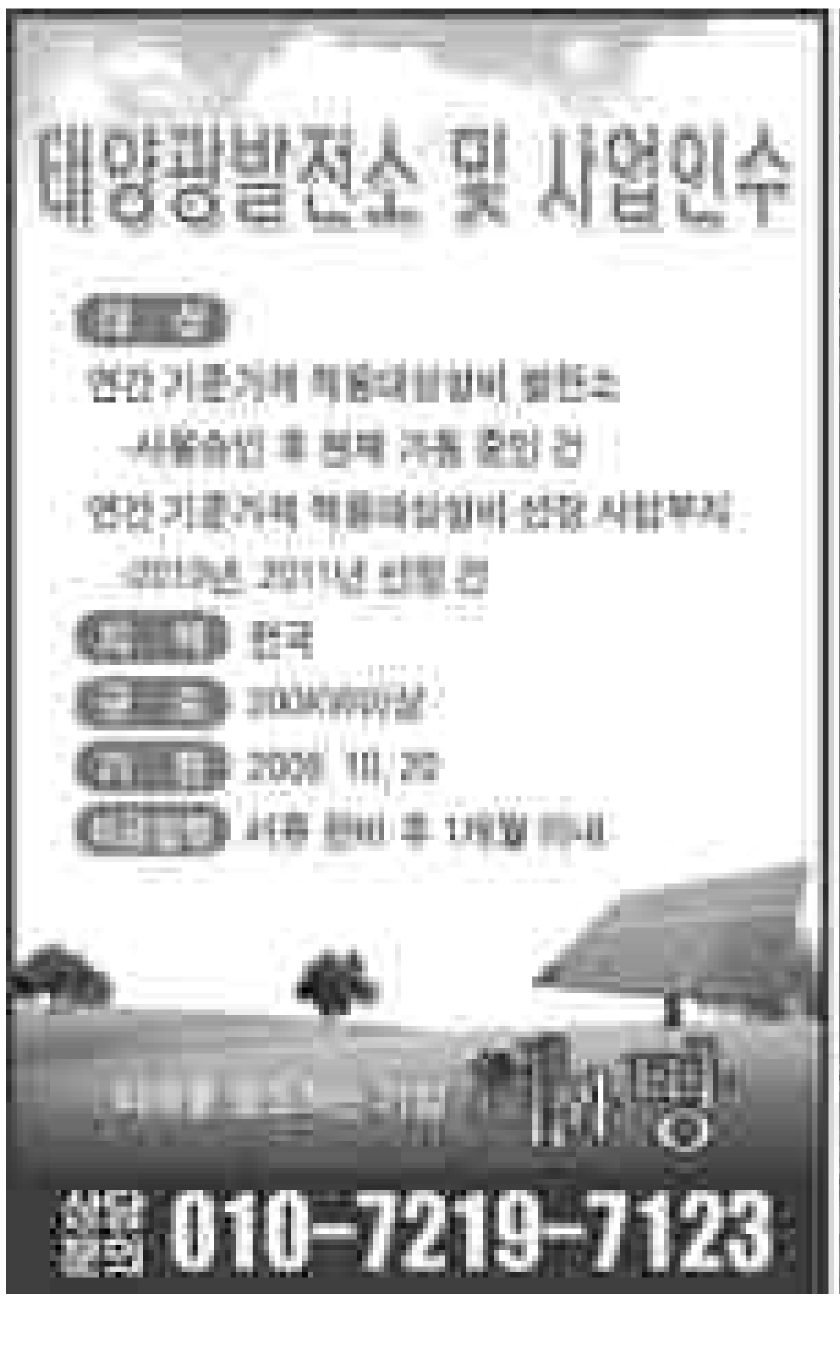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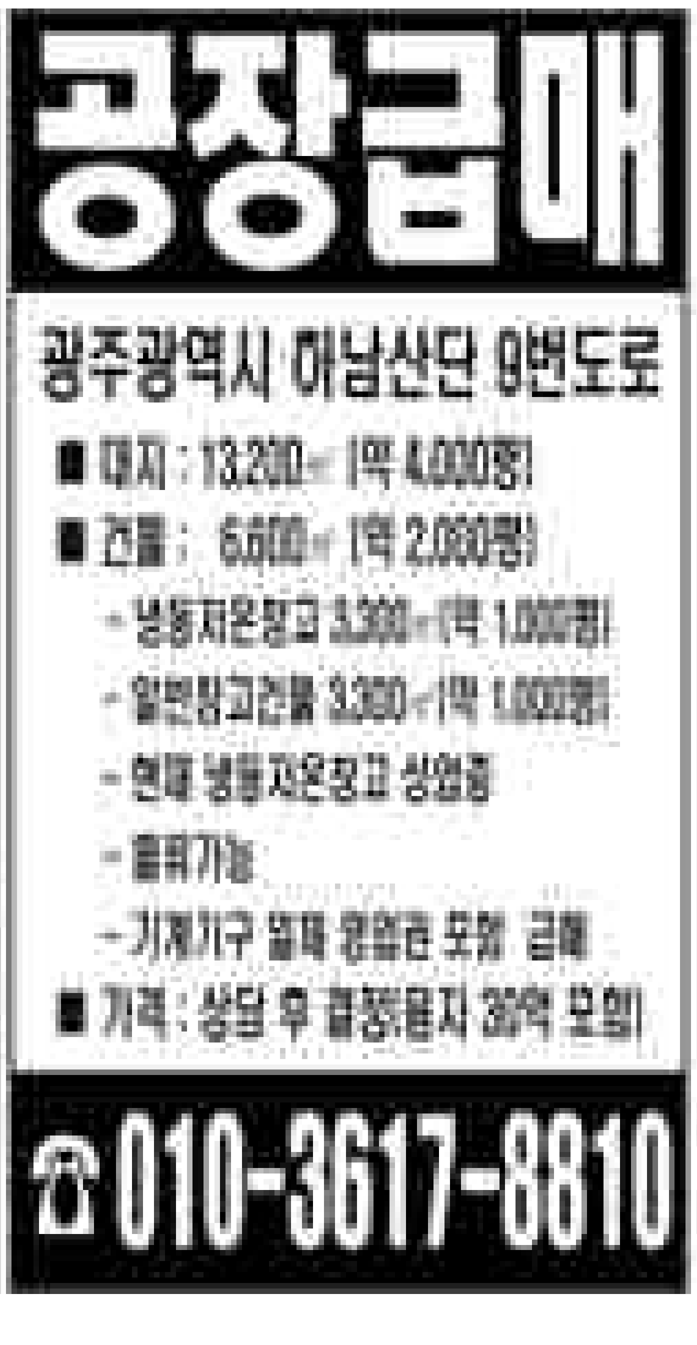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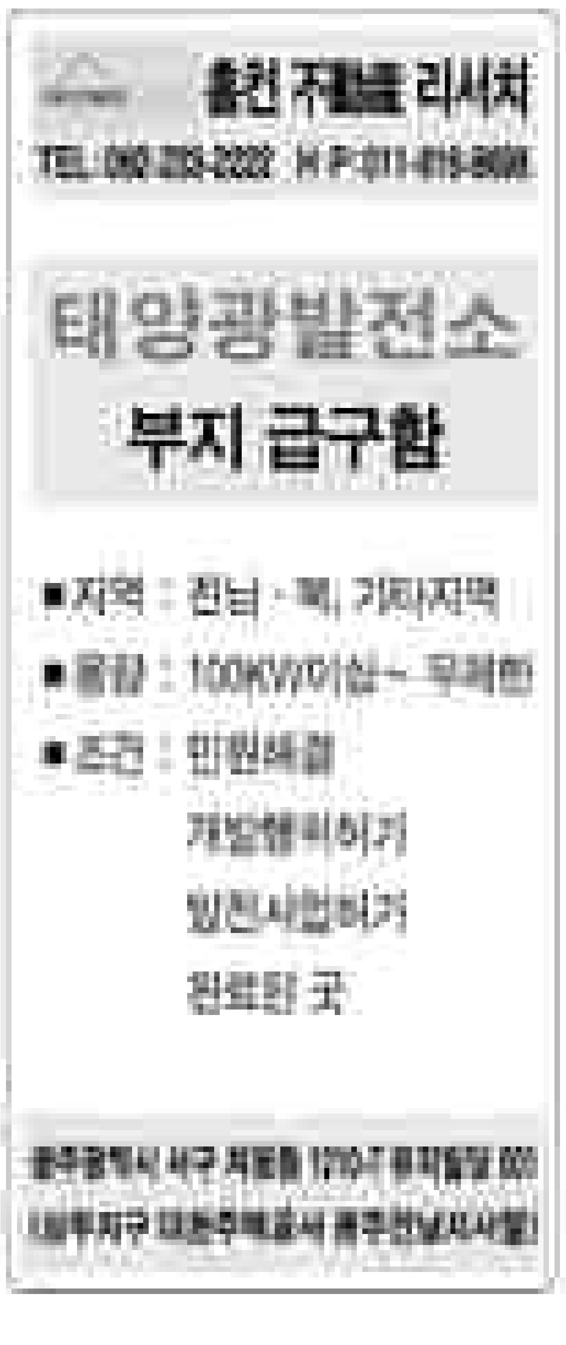
또 목포시립 교향악단원들이 영웅의 죽음을 애도하고 서사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베토벤 교향곡 제 3번 '영웅'의 2악장을 연주하며, 목포시립 소년합창단은 생전에 고인이 즐겨 불렀던 '고향의 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한다. 목포시립 합창단은 아름다운 선율로 '그리운 금강산'과 '선구자'를 선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목포시립무용단의 창작 진혼무 '목련꽃 한 아름 바치오니…' 작품을 선보이며 추모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강인규 나주시의회 의장 어르신 무료 급식 봉사

강인규 나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나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르신 무료급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 강 의장은 100여명의 노인들에게 음식을 직접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의장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식생활 안정에 묵묵히 앞장서고 있는 복지관측의 따뜻한 선행에 감사한다"면서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1주일에 꼭 한 번씩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